

P22. 서울·경기지역 주민의 농촌마을 동제에 관한 인식

Seoul metropolitan region resident's perceptions on the folk festival in rural village

김 영*, 이상영, 김은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Kim, Young* · Rhee, Sang-young · Kim, Eun-ja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ion, NIAST, RDA

동제는 농촌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에게 마을주민들의 무병과 풍년을 빌기 위해 드리는 마을 공동 제사이다. 이러한 신앙 행위는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는 역할을 담당해왔고, 매년 정기적인 의례로 되풀이되면서 역사의 커다란 맥락 속에 유지되고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생태적 환경과 생활주기가 변화하면서 소멸, 축소, 변형 등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농업국가였던 우리 민족문화는 벼농사를 중심으로 전승 발전된 문화이나 전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사라지게 될 운명에 놓여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일부로 볼 수 있는 농촌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농촌주민은 물론 나아가 도시민의 합의를 근거로 농촌지원정책의 타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농촌마을주민의 공동신앙인 동제를 대상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에게 동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자의 26.1%는 농촌에서 성장하였고, 73.9%는 도시에서 성장하였으며, 농업과 농촌에 대한 관심도는 81.9%는 매우관심이 있거나 또는 관심이 있다고 하였고, 18.2%는 농촌에 관심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다.

동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질문하였을때 56.8%는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였고 43.2%는 이 설문지를 통해 처음 들었다고 하였다. 동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44%는 동제에 참석하거나 동제음식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1.8%는 대중매체를 통해 알고 있다고 하였다. 동제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는 다음과 같다. 동제는 마을주민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한다 3.89, 동제는 주민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온다 3.43, 동제는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3.73으로 응답하였다. 동제의 가치에 대한 의견으로 존재가치 42.9%, 상속가치 32.1%, 가치없음 21.4%이며, 동제가 일반인의 참여가 가능하다면 관람이나 참여의 의향에 대해서는 43.2%는 긍정의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 동제에 참여의사를 보인 응답자 중 그 이유(복수응답 가능)는 68.3%가 가족을 위한 기원의 의사가 있다고 하였고, 75.6%는 나에게 새로운 체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에 권유 할 의사가 있는 가에는 72.7%가 본인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아는 사람에게 권유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신앙을 비롯한 전통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고 우리의 농촌에 남아 있는 전통문화의 보존에 대해서 전 국민의 합의가 점차 필요할 때라고 생각된다.